그러나 2, 3의 나라에서는 10% 割引率로는 원자력이 석탄과 거의 동등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주 僅小하나 조금 경제적으로 不利해진다.

여기서 설명한 感受性分析의 결과는 다른 모든 變數를 標準値로 고정하고 한번에 하나의 變數를 바꾼 경우의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經濟的 優位는 2가지 이상의 變數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명백하게 대폭 감소한다. 따라서 설명되고 있는 이익의 정도를 주의깊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例로서 원자력발전소의 資本코스트가 대폭 증가했을 경우 前述의 낮은 負荷率까지 負荷追從모드로 경쟁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나라 또는 전력회사가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는 감소한다.

結　論

UNIPEDE/NEA의 조사는 현재의 設計로 1990년대 중반에 운전개시하는 基底負荷原子力發電所는 대부분의 OECD加盟國 또는 地域에서 현재의 石炭火力發電所에 대해서 競爭力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원자력의 優位度幅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경우 負荷追從을 위해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까지 상당히 크다.

原子力의 優位性을 排除해버릴만한 상황이 겹친 상태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며, 검토하고 있는 발전소의 耐用期間中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원자력의 석탄화력에 대한 優位性의 폭을 확대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자력이 모든 새로운 발전소에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및 기타의 要因과 함께 경제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조사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原子力發電은 앞으로 10년동안 경제적인 電力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위스, 原電의 重要性을 强調

=原電은 危險性이 가장 적은 原電=

스위스의 電力會社 ATEL社는 1986년 8월 19일 제27회 스위스原子力協會年次大會에서 스위스가 原子力發電을 포기했을 경우 그 必要經費는 400億 스위스프랑에 달한다고 試算結果를 밝혔다. 또 가동중인 原子力發電所를 石炭火力發電所로 代替했을 경우 1kWh當 電氣料金은 現行보다 40%가량 비싸진다고 경고하고,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源은 없으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解決하기에 곤란하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문제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 年次大會에서 스위스原子力協會의 會長은 강연을 통하여 「원자력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議會와 國民에게 맡겨져 있으나 早急하게 決定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다른 電源을 준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會長은 또 「원자력발전은 체르노빌事故後에도 가장 위험성이 적은 電源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였다.